



제3회 PE컵 축구대회를 마치고

The 3rd Annual PE CUP Football Championship



글 | 李 玄 凍

(Lee, Hyun Dong)

건축구조기술사,
한국기술사회 축구단원,
(주)나래구조안전기술 대표이사.

E-mail : narae@naraestr.co.kr

1. 들어가며

제3회 PE컵 축구대회가 지난 6월 14일(토) 북한산국립공원인근에 자리한 송추 고려대학교 천연잔디구장에서 한국기술사회 축구단과 청년위원회 주관으로 성공리에 마쳤다. 2006년부터 시작한 PE 컵은 각계단체와 기관으로부터 사전신청접수를 받아 전년도 우승팀을 포함한 8개팀을 선정하여 초청하게 된다. 이렇게 개최된 이번 축구대회는 한국기술사회에서 주최하고 공공단체 및 전문가 축구동호회를 초청하여 총 8개 팀이 2개조로 나누어 2개 구장에서 풀리그로 진행되었으며 준결승은 각 조의 1, 2위 팀을 선발하여 크로스 토너먼트로 경기를 가진 후 결승전을 통해 승자를 가리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대회에 참여한 단체는 서울특별시청, 인천광역시청, 서대문구청, 서울변호사회, 대한건축사회, 한국기술사회, 건설회사 엠코, 국립중앙박물관 등 총 8개 기관에서 활동하는 축구 동호회가 각자 자기가 속한 단체의 명예를 걸고 최선을 다해 경기에 임하였다.

대회를 통해 이정만 회장님께서 강조하신 것처럼 이번 대회는 참가팀 상호간에 화합과 단결의 장을 만드는 것이 가장 큰 목표라고 할 수 있다.

본 대회는 아마추어대회이면서 각 단체 간의 친목과 교류의 장이기도 하지만 경기에 임해서는 각 기관이나 단체의 명예를 걸고 임하는 선수들의 마음가짐은 프로선수급 못지않은 열정을 보였다. 따라서 각 팀의 승부욕이 과열되어 간혹 비신사적인 행동이나 심한 반칙 등으로 불미스러운 일이 종종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번 대회에서는 원만한 분위기로



▲ 한국기술사회 이정만 회장님의 대회사



종료함으로써 각 단체의 명예 못지않은 매너와 역할을 충분히 보여주었던 대회라 생각된다.

2004년 11월에 기술사축구단이 창단된 이후 한국 기술사회의 홍보와 위상을 제고하고 회원 상호간 친목을 도모함과 동시에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에 걸맞게 꾸준한 경기를 통해 발전을 이루어 왔다. 그동안 경기를 치룬 팀은 서울변호사회, 동대문구청, 구로구청, 서대문구청, 건축사, ROTC 북부지회, 엠코건설 등으로 다양한 팀과의 경기를 통해 실력을 쌓아가고 있으며 한·일 기술사와의 정기전을 통해 단원들의 실력이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특히 이번 제3회 PE컵 축구경기를 준비하기 위해 유해출 단장님의 헌신적인 지휘 아래 1개월 전부터 한국기술사회 사무국, 청년위원회 등의 도움을 받으며 본 대회를 준비하였다. 경기 당일에는 단장님과 32명의 축구단원은 각자에게 주어진 임무를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사분란하게 잘 완수하였다.

본인을 포함한 몇몇 선발대 축구단원들은 함께 천막과 플래카드를 걸고 대회 장비를 준비하는 등 사전준비를 맡았으며, 곧이어 도착한 한국기술사회 사무국 직원과 청년위원회 위원, 축구단 단원 등과 함께 대회 준비를 계획대로 마칠 수 있었다.

2. 경기 결과

아침 일찍 참가선수단들이 속속들이 대회장에 도착하면서 각 구장에서는 바로 첫 경기를 치를 예정이었으나, 각 선수들의 컨디션조절과 여유있는 경기운영을 위해 개회식을 먼저 치르고 각 구장에서는 바로 풀리그 예선경기를 진행하였다. PE컵이



▲ 한국기술사회 축구단 경기 장면

친선대회이긴 하지만 공정한경기진행을 위해 당연 KFA심판자격을 갖춘 심판진이 주심과 부심을 보았다. 우리 축구단은 B구장에서 홍홍표 감독의 지시를 받으며 건설회사 엠코와 첫 예선전을 0대 0으로 비기고, 예상외로 두 번째 경기는 작년우승팀인 인천광역시와 1대 1로 승리와 같은 무승부를 거두었으나, 곧바로 마지막 예선인 서울특별시청과의 경기도 2대 2로 비기면서 3무의 기록으로 아쉽게 준결승을 진출에 실패하였다. 그래도 3게임 무패?를 기록함으로써 마음에 위안으로 삼았다. 이날 우리팀예선 굵직한 대회라면 빠지지 않고 부산에서 올라와 매번 2~3골씩 넣고가는 박봉수기술사께서 단연 돋보이는 실력을 발휘해 팀스트라이커 역할을 충분히 해주었다. 아무쪼록 아쉬지만 팀의 승패를 떠나 모든 단원(특히, 지방에 있거나 출장, 부상등으로 자주 참석하지 못하는)이 자주 한자리에 할 수 있는 기회가 그리 많지 않다는 점에서 이번 대회의 또 다른 성과이기도 하다.

결국, A구장에서는 서울변호사회와 서대문구청이 B구장에서는 인천광역시청과 서울특별시청이 각각 1,2위로 올라와 2차전과 결승전을 치러 작년



도우승팀인 인천광역시청이 또다시 우승의 영예를 안았고 준우승은 서울변호사회가 차지하는 걸로 이번 대회 of 승패를 모두 가리게 되었다.

폐회식은 오후 5시경에 진행되어 각종 시상식과 함께 모든 행사를 마무리하였다. 모든 단원들은 운동장과 행사장을 뒷정리하였고, 마무리할 무렵 단원들이 한자리 모인 가운데 기술사축구단이 활발한 대외활동과 우리회 홍보와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함을 인정받아 한국기술사회장표창을 본인이 대표로 수여하게 되었다.

3. 나가며

제3회 PE컵 축구대회를 성공적으로 마치기까지 물심양면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주신 한국기술사회 회장님과 단장님, 그리고 헌신적인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여러분들의 숨은 노고가 있었기에 매 대회마다 좋은 성과와 결실을 맺어가고 있다 생각이 든다. 아울러 실전이든 연습이든 자기 자리를 지키며 땀 흘린 동료 선수들의 단합된 마음을 올 9월로 다가온 제4회 한일기술사축구대회(일본 니카타현)에서도 보여주길 기대하며 얼마 남지 않았지만 원정경기를 위해 다시 한 번 팀웍을 다져

가야 할 것이다.

이번 대회에 준우승을 한 서울변호사회팀은 매년 “세계변호사축구대회”에 참가한다는 얘기가 있다. 올해는 스페인 알리칸테에서 50개국이 참가하여 변호사회팀은 벌써 14회째 참가하고 있다한다. 축구를 좋아하는 축구단원으로써 또한 기술사로서 솔직히 부럽기만 했다. 하지만, 우리도 준비를 하고 있지 않은가.... 벌써 시작을 하지 않았는가... 올해로 4회째 맞는 “한일기술사축구대회”는 일본 니카타현에서 열린다. 이 대회는 단지 한일기술사에만 국한된 장(場)이 아니다 언젠가는 아시아의 장(場)이 더 나아가 세계의 기술사들이 주목할 만한 기술 교류의 장으로 펼쳐질 것이다. 바로 세계기술사 축구대회(WFCPE·World Football Cup of P.E)를 머지않아 개최할 수 있을 것이라 나는 굳게 믿는다.

끝으로, 축구에 관심 있는 기술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건강과 친목을 도모하는 기회가 많이 있기를 기대하며, 올해도 여러 대회를 통해 우리 축구단은 한국기술사회와 기술사를 공공기관과 전문가단체에 홍보하고 교류하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원고 접수일 2008년 6월 25일〉



▲ 빠른 돌파력으로 인상 깊은 플레이를 유감없이 보여주었던 김형중 기술사 (FW)



▲ 한국기술사회 축구단을 대표해 표창을 받는 이현동 기술사 (FW)



한국기술사회 축구단 선수 명단

단장 : 유해출 | 부단장 : 박영환 | 감독 : 홍흥표 | 총무 : 조인기 | 코치 : 이봉태

한국기술사회 축구단 연락처 : 011-9082-2208(박영환 부단장)

한국기술사회 축구단 홈페이지 : <http://cafe.daum.net/KPEAsoccer>

순번	성명	자격종목
1	강영승	해양
2	고홍림	건축시공
3	김성섭	건설안전
4	김성훈	발송배전
5	김진기	건축구조
6	김형중	지질및지반
7	박봉수	수질관리
8	박용덕	건축전기설비
9	박인근	발송배전
10	박진형	소음진동
11	박희문	건축시공
12	서수상	건설안전
13	서영민	대기관리
14	송가철	건축기계설비
15	엄강욱	한국기술사회 사무국
16	오대영	발송배전
17	이상원	건축구조
18	이선우	발송배전
19	이성희	철도차량

순번	성명	자격종목
20	이정환	건설기계
21	이철우	특별회원
22	이현동	건축구조
23	임영기	소음진동
24	전옥영	건축시공
25	정진수	공조냉동기계
26	조만희	소음진동
27	조한광	건축시공
28	최원덕	수질관리
29	최형규	제품디자인
30	함창완	대기관리
31	현정원	토목시공
32	홍재윤	해양
33	안상수	건축시공
34	권영빈	발송배전
35	나상용	발송배전
36	이재선	발송배전
37	양승렬	소음진동
38	박형규	건축시공

